

위대한(?) 지도자 모세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람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개역, 출애굽기 3:1~14]

대 부분의 위인들 이야기에는 조국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할 때 남긴 명언들이 있습니다. 계백 장군의 경우에는 명언이라기보다는 꺼져가는 조국을 지킨다고 싸움에 나가면서 못 이긴다는 걸 알고 나갔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전부 자기 손으로 죽이고 갔죠. 자신들의 죽음은 물론이고 나라마저 빼앗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전쟁에 임하는 자세에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일제 시대 때 독립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는 독립 투사들이 집을 떠날 때 ‘이제 나를 죽은 길로 여기고 더 이상 나를 찾지 말라.’ 그러면서 처자식을 다 버려두고, 가정을 버리고 조국을 등지고 독립을 위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아들들을 떠나보내면서도 ‘조국을 위해서 장도에 나서는 아들 앞에 눈물을 보일 수 없다.’ 해서 우리 어머니들은 눈물 한방울 보이지 아니하고 보냈습니다. 정말 장한 아들이고 장한 어머니들이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들이나 민족의 지도자들이 부름을 받거나 일을 시작할 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세는 어떤 모습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나섰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 그러니까 모세가 “예”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해서 지도자의 길로 나섰습니까?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있습니다. 본문 중에 어느 대목을 짚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지도자로 나서긴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4장 12절에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리니까 “예” 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안 하면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3장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어떻게 불렀어요?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요? 크게 보면 나타나신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산에 불을 놓으셨습니다. 모세가 저 산밑에서 양떼를 치다가 보

니까...

산불 났어요.

아, 산불 났죠. 산불이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요.

산에 갑니까?

꺼야 돼요.

꺼야 된다고요?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보니까 저쪽 산 중턱이 될는지 어딘지 모르지만 불이 났습니다. 뭐 흔히 있는 일이니까라고 여겼겠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불이 났으면 번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참 타다가 꺼지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때요? 그대로 가만히 있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모세가 호기심이 동했을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왜 올라갔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올라간 게...

모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리 오나라 해서 간 게 아닙니다. 왜 갔어요? 불구경 갔죠. 모세 입장에서 불구경을 간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불을 피워 놓고 유혹을 하는 거죠. '너 이래도 안 올거야?'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느닷없이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는 거죠. 뭐라고요? '신발을 벗어라'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랬더니 3장 5절에서 10절까지 얘기가 상당히 길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점은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지금 애굽에서 당하는 고난을 내가 보았노라. 이제 네가 가서 내 백성들을 구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11절에 모세가 간단하게 한 마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 해야 되지 '내가 누구관대' 이래도 됩니까? 어쨌건 대답은 "내가 누구관대 가겠습니까?" 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2절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테니까 가라'고 하십니다. 그 대답이 13절인데 조금 길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대답이 더 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 모세가 대답을 더 길게 한 유일한 경우입니다.

요약하면 무슨 말이에요? "제가 가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지요?" 간접으로 묻는 셈인데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죠.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주 길게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밝히기를 뭐라고 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이걸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참 어려웠어요. 스스로 있는 자?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어는 쉽다던데 싶어서 영어 성경을 펴죠. 영어는 더 어렵더라고요. 다른 경우는 영어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운데 이 부분은 영어 성경을 펴보면 더 어려웠어요. *I am what I am.*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이 더 폭이 넓고 하나님을 더 잘 나타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설명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께서 숨도 안 쉬시고 긴 얘기를 또 합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는 얘기를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3장 전체에서 모세가 한 말은 몇 구절에 불과합니다. 그 몇 구절을 빼면 나머지 전부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구해 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4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고 모세의 대답이 이제 나오죠? 하나님께서 길게 설명했더니 실컷 듣고 있다가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건대요." 그런 표현도 되겠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한 셈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참 잘 들어줘요. 그 다음 2절에서 자그마치 9절까지 "이만하면 안 되겠냐?" 하면서 이적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이적은 보여주지만 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는 증거로 이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뱀잡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땅꾼.

땅꾼이라고 그래요? 모세는 훌륭한 땅꾼일까요? 아니면 능력 없는 땅꾼일까요?

능력 없는 땅꾼.

왜 능력이 없어요? ‘꼬랑지’라고 누가 말씀하시네요. 제대로 뱀 잡는 사람은 절대 꼬리를 안 잡습니다. 왜요? 꼬리 잡았다가는 바로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머리를 잡아야 하는데 꼬리를 잡아도 괜찮았더라. 이건 이 이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뱀 꼬리를 잡았다더라 해서 꼬리 잡으시면 큰일납니다. 바로 물려요. 이렇게 이적을 두 가지 보여주면서 요점은 뭐냐 하니가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는 얘기죠. 그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4장 10절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죠? 혀가 둔하고 입은 뻗뻗하고. 요약하면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요.”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2절에서 9절까지 길게 얘기해 왔더니 한 마디로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다음 대답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못하셨을 거란 느낌이 들어요. 말을 잘 못한다 하니가 뭐라고 그래요? “네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를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 정도 같으면 할 말이 없거든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 다음 뭐라고 하나 보세요? 13절 ‘보낼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모세가 누구를 닮았죠? 경상도 말로 이럴 경우에 뭐라고 그래요? 모세 참...

이쪽 지방 말 잘 모르세요? 이럴 때 적합한 이쪽 지방 말이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로... 어지럽다구요? 오질없다구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말이 정말 ‘악다반다’라는 겁니다. 이게 설교 제목에 사용하기에는 표현이 조금 안 좋지만 느낌은 딱 맞아요. 정말 애들이 말 안 들을 때 있죠? 지독하게 말 안 듣고 삐딱거리고 튀어 나갈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늘 했던 말이 “애가 어떻게 저렇게 악다반을(어른들 받음으로 는 바글) 수가 있나”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모세요? 핑계를 대고 둘러대는 데는 아마 소질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길게 길게 설명해 봐도 “못합니다. 못합니다.” 계속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자신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앞으로 희망이 많습니다. 모세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모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제 자신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 기드온의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도 사실은 저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고등학교 때 했거든요. 그게 70년도 초반입니다. 몇 번을 간다 만다 옆치락 뒤치락 하다가 올해에 갔으니까, 근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밀었다 당겼다 했으니까 모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했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모세가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이 꼭 저 자신의 이야기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지난 주에 목사님께서 심방 오셔서 모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공감은 합니다. 자신도 그래놓고 모세를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악다바글 수가 있나 하고 생각하는 게 참 우스워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은 잘 알기 어려운가 봐요.

“나는 차라리 모세보다는 낫겠다.”고 생각이 되시면 큰 복인 줄로 아시고 “나하고 아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드시면 이런 모세도 나중에 위대한 지도자가 됐으니 위로를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를 더러 보기는 하는데 고마 ‘하겠습니다’ 하면 될텐데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모세보다 심한 경우를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자, 이런 모세가 어떻게 해서 지도자로 나갔죠? 이제 찾아보십시오. 처음에 물었던 질문입니다.

노를 발하사. 많이 혼나고 갔어요.

혼나고 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노를 발하사.

노를 발하사. 이게 답이 됩니까? 성경은 아주 점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를 발하사 그제서야 모세가 갔더라 그 얘기입니까? 그 뒤에 조금 붙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모세가 지도자로 나서는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이 노를 발하셨을 때입니다.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하나님께서 노를 발하사 이렇게 말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직접화법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노를 발하시면 뭐라고 했을까요? 말이 좀 험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마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마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독하게 부모 말 안 듣다가 드디어 막판에 아버지가 열이 날 대로 나서 터지는 겁니다. 그때 보통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실마 그랬겠냐 하지만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노를 발하셨습니다. 모세가 더 버티었다가는 맞아 죽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간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게 하도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이 보너스를 조금 줬을 뿐입니다. 뭐니까? 네가 그렇게 말 못하는 게 걱정이 되고 안되겠다 싶으면 말 잘하는 너 형 붙여 줄테니까 같이 가라는 거예요. 형을 붙여 주었기 때문에 모세가 간 건 아니죠? 노를 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노 때문에, 더 버티었다가는 맞아 죽겠다 싶어서 가긴 가는데 그게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형을 붙여 줬을 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위대한 우리들의 조상 중에 이렇게 해서 지도자로 나선 분이 있을까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고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해서 정말 마지못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나서는 거죠.

보통 17절에서 단락을 끊으면 될 텐데요 18절을 거기에 붙였습니다.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을 내려와서 장인에게 갔습니다. 장인에게 가서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안 가면 안될 것 같아요. 저는 못간다 못간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더니 안 가면 때려죽일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지금 가야 합니다.”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해야 할 판이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장인에게 뭐라 하나 보세요. 애굽을 떠난 지가 40년이 됐으니까 우리 형제들이 살아 있는지 한번 가볼랍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장인이 잘 갔다오라고 그러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그런데 왜 모세는 말을 이렇게 할까요?

겉이 나서.

누가 겉이 나서요? 장인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가서 일이 잘 안 되면 그런 말입니까? 그러면 그런 점도 있겠다 그죠?

진심으로 지도자로 갈 마음이 없어서요.

진심으로 지도자로 갈 마음이 없어서요? 자기 스스로도 내가 지금 가서 이런 일을 해내겠냐 하는 그런 것보다 어쨌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장인이 나보고 뭐라고 할까?

니가 뭐...

니가 뭐? 무슨 민족을 구해낸다고?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을 두려워하는 것인지는 모릅니다. 확실하게야 알 수 없지만 모세의 심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모세가 내가 이래도 민족의 지도자인데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만 좌우간 모세는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바로 앞에 갑니다.

바로 앞에 가서도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못합니다. 제대로 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보내지 않으면 애굽에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될 판인데 5장 1절 한번 보세요. 중간 쯤에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러니까 바로가 픽 웃어요. 3절에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회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그 다음 말을 주의 깊게 보세요.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누구를 치실까?

우리를.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가 안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것 같으니까 우리는 가야 됩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친다고 하는데요?

애굽.

왜 그 말을 그렇게 하죠?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를 칠 것이라는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혼이 날지 모르니 보내주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말을 듣고 보내 주겠어요? 어렵도 없죠. 바로에게 고개 숙여가면서 사정사정 했는데 이게 될 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돌아옴

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는 기도가 22절 23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까’ 왜 나를 보내셨나요 그런 얘기죠? 거기다가 만약에 조금 더 갖다 붙이면 “하나님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못한다고 안했습니까?” 이런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섰습니다.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이 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모세가 한 말과 바로가 한 말을 이렇게 대조를 시켜가면서 비교를 해 보세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처음에는 짧고 바로가 하는 이야기는 깁니다. 모세는 저자세로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고자세입니다. 픽픽 웃어가면서 합니다.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변해가느냐를 유심히 보세요.

뒤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가 고자세요? 모셉니다. 또 말 안 들었지. 이번에는 용서없다. 큰소리 뽕뽕 치면서 나가 찾으러 오지 않으면 나는 다시는 안 올거다 하고 가버립니다. 뒤에 가서 온통 사정하고 발발 떠는 것은 바로입니다. 모세의 말은 자꾸 길어져요. 바로에게 와서 큰소리 뽕뽕 치는데 이게 아주 길어집니다. 바로의 말은 차츰차츰 짧아져 갑니다. 이걸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보면 모세의 변화가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아하! 모세가 이렇게 변해갔구나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뒷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거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거절하는 이유가 혹시 짐작이 가는 게 있습니까? 적어도 애굽의 왕자가 애굽의 하급 관리 한사람을 때려죽이고 묻었다는 것이 도망을 가야 할 정도로 큰 사건이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도 대통령 아들쫓 되면 웬만한 사고는 다 묻혀진다고 하던데 그 옛날 절대 권력을 가졌던 그 나라의 왕자가 사람 하나 죽인 걸로 도망을 가야 했을까요?

성경은 때로는 긴 이야기를 압축해서 한마디로 탁! 끝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우리가 짐작을 할 수밖에는 없죠. 확정지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모세가 애굽 관리 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사고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거기 말씀처럼 자기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는 말과 애굽 사람을 때려죽인 거하고 연관을 지어보면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왕자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자기 민족의 지도자로서 어떤 일을 꾸렸거나 시작을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왕자가 그 자리를 버리고 망명을 가야 할 정도면 국가의 반역정도는 되어야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모세는 나이 40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실패했던 쓰디쓴 경험이 그로 하여금 40년을 광야에서 양 떼나 치며 살게 했고 그 실패와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면서 모세는 이걸 겸손해졌다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낙담해졌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이유가 하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결국 모세는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낮추셨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40년동안 뭘했습니까? 양치며 지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족의 지도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듯 아마 자기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 구성된 가족과 함께 목자로서의 삶을 40년 살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요인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일도 옛날 이야기죠. 그저 한낱 목동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40년 돌아다니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지도자가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면 광야 생활이 얼마나 더 힘이 들까요? 나름대로 모세가 앞으로 광야 40년을 지도자로서 생활을 할려면 광야 지대의 성격을 어느 정도로는 알아야 한다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훈련시키시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할지라도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이미 나서야 할 사람이었지만 40년동안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이렇게 한가로운 세월만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느닷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그만큼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 외에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모세가 혀가 좀 짧았답니다. 못한다고 버티는 이유 중에 10절에 보면

혀가 뻗뻗하다는 말을 했죠. 말에 능치 못했다는 표현과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라는데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모세가 혀가 좀 짧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혀짜래기/인셈이죠. 혀가 조금 짧았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난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올라가서 연설을 해야죠. 뭐라고 그러니까? 혀짜래기 소리로 '치내하는 궁민 여러분...' 했다가는 웃음만 살 것 아닙니까? 혀짜래기 소리하면서 지도자 노릇을 하겠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경상도식 발음 때문에 얼마나 우스개감이 되었는데 모세가 혀짜래기였다면 그보다 훨씬 더 애로사항이 있는 셈이죠.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세가 직접 안 나서는 거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그 말을 듣고 아론이 나서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걸로 봐서 이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지도자로서 아마 결정적인 흠이 아닐까 싶어요. 모세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봤을 때 이게 문제가 분명히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안 하겠다기보다 모세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더 기상천외한 거죠. 너 입을 누가 지었느냐? 혀짜래기 소리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깁니다. 아마 그대로 순종하고 갔으면 가는 도중에 혀가 조금 늘어났을지도 모르죠. 혀가 좀 늘어나서 정상적으로 돌아올 기회를 버티는 바람에 영영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나중에 형 없이 단독으로도 잘 해냅니다. 이런 저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한다고 버티었을 것은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적을 보이고 사정하다시피 이 많은 말로 설득을 설득을 하는데도 끝끝내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긴가민가.

믿기는 믿는데 좀, 약간 없다? 긴가민가한 믿음이다? 믿음의 종류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자, 이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순종 안하는 게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있지요.

아, 예. 혹시 도저히 이걸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하시는 분 안 계세요? 분명히 믿음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확실한 믿음입니다. 능력도 힘도 없어서 못한다 할 뿐이지 믿음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 그 정도 믿음은 나도 있다." 하실 분 많이 계시죠? 오늘부터 나는 믿음이 왜이리 없을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것도 확실한 믿음일 것 같으면 그 정도 믿음은 나도 있는 것 같아. 예.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것마저도 아주 소중한 믿음입니다. 이 모세가 나중에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죠? 내가 누군데 너희가 감히 나에게 대드느냐? 나에게 대드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께 대드는 거다. 막 책망을 합니다. 이야! 변해도 엄청나게 변한 겁니다. 이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 모세에게 대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심하게 야단을 칩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변했느냐는 얘깁니다.

아주 아주 옛날에 제가 이 얘기를 했다가 그게 어떻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무심코 아! 이걸 확실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믿는 행위입니까? 어떻게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동안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될 것이냐 하다가 1년만에 대답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감히 나서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전부 이론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듣고 배워서 귀에만 박혀 있는 믿음일 때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억지 순종인 거죠. 억지로 끌려서 가다보니까 재미있거든요. 처음에는 바로에게 가서 굽신굽신하고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재미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고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손을 내밀라 하는데 야! 이거 내밀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다행인데 안 생기면요? 개 망신이에요? 그런 어려움이나 고민들은 순간순간 많았을 겁니다. 한번씩 해볼 때마다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변해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자기 생각에 맞진 안 맞진 해보니까 재미있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야! 이걸 되잖나 싶은데 해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왜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까. 그런 재미가 살살 들면 그 다음부터 순종이 잘 됩니다. 이런 걸 무슨 신앙이라고 하죠?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하죠.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이 배워서 귀에만 익어 있는 신앙이라면 힘이 없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믿음은 분명히 믿음으로 되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실제로 말씀대로 움직인다 보니까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 나가면 세상에 세상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재미는 그런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는 아니지만, 하기는 싫지만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싶거든 그냥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때 부르는 찬송이 뭐냐. 깊은 바다로 가는 찬송 있죠. 왜 물가에서... 제가 원래 잘 하는데 여기 서니까 생각이 잘 안나네요.

언덕을 넘어서.

예. 언덕을 넘어서요. 깊은 바다로 들어가 보면 그 큰 은혜의 세계가 있을텐데 찰삭거리는 작은 파도가 무서워서 여기서 찰랑찰랑 하다가 결국은 그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이론에 박혀 있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결국은 체험적인 신앙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모태신앙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못해신앙.

김은옥 집사님이 쓸데없는 걸 많이 알아요. (웃음)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은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걸로 알았는데 하나 더 있더라고요 모 밑에 '스' 붙이고 그 다음에 해 신앙. 말끝마다 '못해. 못해' 이게 '못해신앙'이래요. 그러거든 옆에서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이고 저 모세" 왜요? 못한다 못한다 하고 버텼던 사람 중에 아마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모태신앙인입니다. 맞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는 잘 믿었잖아요. 그것도 모태신앙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해도 못한다고 버티는 것도 못해신앙이고 그러니 어느 쪽으로 발음을 해도 모세는 모태(못해)신앙인이다 그러면 맞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못해신앙을 갖고 계시는 분은 빨리 좀 바뀌셔야 합니다. 못해. 못해 하지 말고 아! 이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하다 싶으면 그냥 재지 말고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된 즐거움을 맛보시게 될 거란 얘깁니다. 모세가 그렇게 바뀌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해둡시다. 이럴 때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누구죠?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은 그날 정말 역세계 재수 없는 날이었을 겁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로마 병정들이 죄수를 끌고 가는데 원고 싶어서 고개를 숙 내밀었더니 "너 이리 좀 와봐." 시커멓게 생긴 거 보니까 너 힘 좋겠다. 이리와 봐. 그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갔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속으로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정말 재수 없다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구레네 시몬의 아들 둘은 신약시대에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다 나오는 걸로 봐서요. 아마 그것이 그날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전혀 본의가 아니고, 억

지로 뒤집어 쓰고 간 십자가였지만 그것이 그에게 큰 복으로 다가온 소중한 기회였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교회다니시는 것, 교회에서 맡은 일 이게 역지로 진 십자가처럼 여겨지십니까? 혹시 있거든 나도 어디 십자가 하나 굴러다니는 거 없나 해서 역지로라도 덮어써 보세요.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너 이거 해.”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연 지팡이를 쥘고 도사같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경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신실한 이웃들을 통해서 이런 거 합시다. 그러면 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아!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우리에게 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우리가 기꺼이 순종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실은 좀 민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딱서니 없는 모세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기 이전에 나이 사십에 광야에 가서 양떼 치면서 40년 지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냥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면서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귀 막고 눈 막고 관심이 전혀 없는 딱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세상에 이렇게 들을 생각도 안하고 있는 거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꼭 모세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이라고 여겨졌을 때 모세는 노를 발하사 마지못해서 억지로 가서도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는 복이 모세가 받은 복보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게 무슨 요인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내 속에서 어떤 요소를 찾지 말고 저 못해요 이리저 맙시다. 모태신앙 좋은 말인데 못해신앙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순종함으로써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셨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 없이 오로지 할 수 없다는 고백만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져 갔음을 봅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과감하게 나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